

KT 노동조합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발행인: 김구현 편집인: 허진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031-727-2820(교육선전실 2850)
팩스: 031-727-4815
홈페이지: www.kttu.or.kr
디자인: 디자인 어백(02-2279-9631)

10 13th

2010년 3월 10일(수)

노동계 핫 이슈

민주노총, 단협으로 전일자 활동 총량 요구

민주노총은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자 근로시간제한 한도를 정하도록 한 개정 노조법에 대응해 기존 전일활동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상 세부 지침을 지부에 하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단협지침 등 개정노조법 대응방침 및 투쟁계획을 밝히며 "노사지리 원칙에 따라 기존 전일활동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협으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근로시간제한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해 노조법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근면위에 참가해 타임오프한도에 있어 인원수까지 제한하도록 한 것을 폐기하도록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통해 노조법 후속투쟁 결의

한국노총은 지난 2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노조 전일자의 실질적인 활동보장과 조합활동의 기반 확보를 위한 개정 노조법 후속투쟁을 펼쳐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다시 반려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놓고 노동부와 전공노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퇴짜를 놓은 것에 대해 전공노가 강하게 반발, 법적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일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 가입·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노조법에 명시된 결격요건에 해당돼 설립신고서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업무총괄자의 개념 역시 사례마다 법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려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전공노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명단과 투표참여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것이며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립신고서를 다시 보완할 지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노동부는 3월을 결혼이민자 특별 구직등록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결혼이민자가 이 기간에 구직등록을 하면 취업알선, 직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 등 다양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비직업훈련 및 한국어 교육기관 안내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기준 결혼이민자는 16만7,000여명에 달하며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언어나 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노동조합, 'HOST운동' 선포

김구현 위원장, 고용안정 최우선 독창적 新노동운동 선언



KT노동조합 김구현 위원장은 3월 5일(금) 오전 8시 50분 KT 강남 Olleh 캠퍼스에서 "2010년을 KT 노동조합 'HOST 운동' 원년으로 삼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선언했다.

KT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노동운동의 새 희망을 선포하며 상급단체를 탈퇴한 이후, 지난 7월의 선언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이날 HOST운동을 선언하게 됐다.

김구현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방향은 노동조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과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노사간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상생의 노동운동을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HOST 운동'은 Harmony(화합), Originality(창조), Share(나눔), Transparency(투명)를 결합한 약어로 KT노동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정신을 함축했다.

또한 이날 김구현 위원장과 이석재 회장은 '올해 KT 창조적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기업가치 창출 주도 및 노사평화 유지, 고용안정 노력 및 노사공동 상생프로그램 시행 등 행복한 회사 실현, 사회적 책임 실천,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김구현 위원장은 이석재 회장과 함께 조합원들을 위해 노사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약속, K가 국내 정보화 통신산업의 중추적 위치를 뛰어넘어 세계 속 초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석재 KT 회장은 "HOST 운동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면서 "신노사문화 공동선언 역시 기업가치 창출과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노사관계의 새로

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축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 돋보이는 'HOST'

김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탈퇴 이후 새로운 노동운동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뜨거웠다"고 설명하며 "조합원을 만족시키고 또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소외 계층까지 배려할 수 있는 KT만의 독창적 노동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T노동조합 단독 프로그램 외에 KT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더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가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노동조합은 노동운동에 대한 비난과 불신을 잠재우고 신뢰받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상급단체에 지출하던 비용을 HOST운동기금으로 전환한다.

KT노동조합의 HOST 운동 중 Harmony(화합)와 Share(나눔)의 주요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사기부터 UP!

노사 상생프로그램 실시

HOST운동 중 노사가 함께 진행하는 상생 프로그램은 △무료인터넷교육 △조합원 문화행사 △트러블사우 프로그램 △선진노사관계 벤치마킹 등이다.

특히 KT노동조합은 내부고객인 조합원의 만족도 향상이 최우선이라 판단, '조합원 중 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무상교육'을 기획,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지친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사우들의 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스트레스와 기를 발산할 수 있는 '조합원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또 노사화합을 위해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 노사관계 공동 벤치마

킹' 등을 진행한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HOST의 사회공헌은 기존 상급단체 지원금 일부와 조합간부 후원, 회사지원을 통해 △사회적약자 지킴이 △사회적기업 지킴이 △녹색지킴이 사업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약자 지킴이는 소년소녀가장 대상 불우이웃돕기, 취약계층 장학사업, 인터넷 무상교육, 비정규직돕기 등으로 이 중 '소년소녀 가장 지킴이'는 노동조합이 예산전액을 부담하는 활동으로 60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매달 2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이 모시는 직계어른의 상조비로 연간 1억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장학사업'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취약계층 고등학생 총 21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45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활동이고, '인터넷 무상교육'은 취약계층 중고생 각각 25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을 전액 무료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정규직 돕기'는 형편이 어려운 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정, 분기별 50만원씩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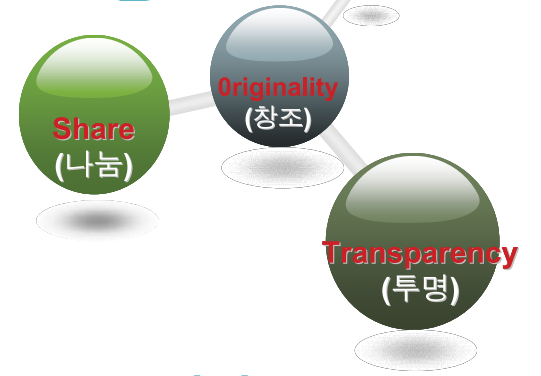
사회적 기업 지킴이는 총 26개 사회적 기업에 생활용품 등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제공에 참여하는 나눔 운동이다.

끝으로 녹색 지킴이 활동은 연 2회 전국 주요 강과 국립공원 등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실시, 갈수록 피해해지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이다.

KT노동조합은 올해 이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HOST운동을 시행하고, 장점을 살려 내년에는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전일자금지급금지에 대비해 현재 재정자립방안을 구상,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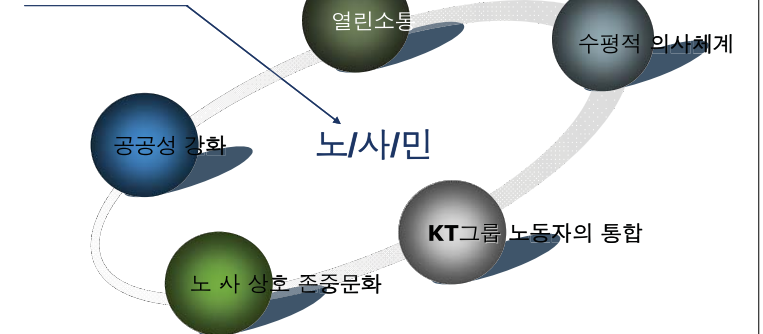
HOST운동



Harmony(화합) 조화, 일치, 화합, 융화

- 반목과 다툼, 대립과 갈등을 해결한 5대 요소
- 하나된 노동조합을 유지, 발전하기 위한 첫 걸음

3차 공동이익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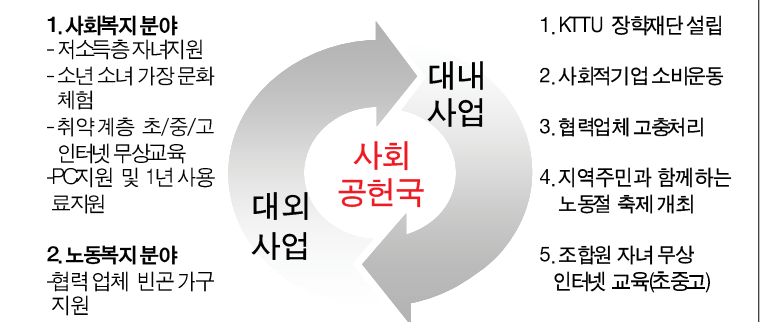
Originality(창조) 독창성, 근원, 창조

- KT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사업
- KT노동조합의 역사와 전통을 승계한 유일한 단체

1. 현장과 함께하는 이동정책실 운영
2. 노동가치를 높이는 정책자문기구 설립
3. 미래경쟁을 위한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4.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 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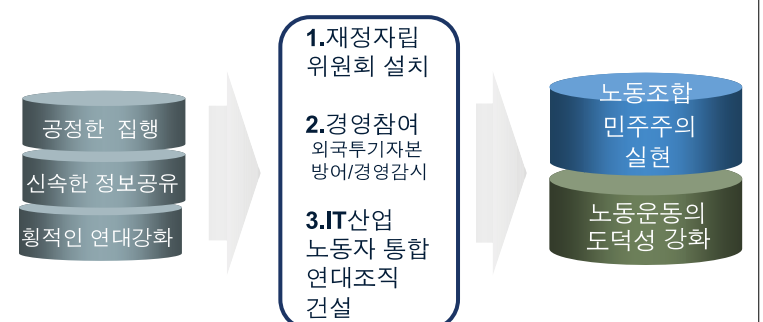
Share(나눔) 공헌, 참가, 분담, 나눔

- 국민들과 호흡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분야



Transparency(투명) 투명, 투명도

- 투명한 집행력, 노동조합 내부의 도덕성 강화
- 민주적/자주적/도덕적 3대 자산



KT노동조합 'HOST 운동' 선포 경과

2009. 7. 10 / 민주노총 탈퇴 임시조합원총회 공고
 - ▲ 7월 17일 민주노총탈퇴 임시조합원총회 공고
 - ▲ 성명서 [민주노총탈퇴 조합원 친분 투표에 들어가게 발표]
2009. 7. 17 / 임시조합원 총회
 - ▲ 95%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
 - ▲ 총회 결과 : 투표율 95%, 찬성률 95%의 압도적 힘으로 민주노총 탈퇴 가결
 - ▲ 성명서 [2만 조합원의 염원을 모아 승리와 희망의 노동조합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발표
2009. 10월 / 신 노동운동 모색을 위한 중앙상임 집중 토론회
 - ▲ 2009. 10. 14. [신노동운동,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간담회
 - ▲ 2009. 10. 21. [KT노동조합의 창조적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특별간담회
2009. 11 ~ 2010. 1월 / 신 노동운동 전략 수립 박차
 - ▲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내부 토론 및 워크숍 수 차례 진행
 - ▲ 전국지방본부위원장의 토론 및 의견 수렴
 - ▲ [HOST 운동] 초안 마련
2010. 3. 5 새 노동운동 전략 'HOST 운동' 공식 선포

2010년 정기 지방본부대의원대회 개최

“고용안정과 권리수호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 펼쳐자” 결의



▲ 경남지방본부 대의원대회 모습. 임현재 부위원장은 김구현 위원장 격려사를 대독하며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중심의 노동운동을 펼쳐가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2월 24일(수)~25(목) 양일간 전국 지방본부별로 2010년 정기 지방본부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09년 활동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와 결산 ▲2010년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을 진행했으며, ‘고용안정과 노동자의 권리수호를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쳐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규약 제24조에 따라 지방본부대의원 중에서 전국대의원을 선출했다.

강남지방본부의 경우 25일(목) 10시30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의원대회에 조합간부 및 33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이현광 강남지방본부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변화를 극복하고,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대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임현재 부위원장은 위원장 격려사를 대독하며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중심의 노동운동을 펼쳐가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현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사색하고 도전할 것”을 약속했다.

결의문

2010년 노동계는 강한 단결력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새해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요인과 가계부채 등 고질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13년간 유예됐던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노동운동은 일대 변혁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노동법이 취지와는 다르게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 일동은 KT노동조합 10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앞장서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수호를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창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에 지방본부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서비스하는 자세로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동조합 조직을 안정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한 일상활동으로 사측의 개입을 차단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무한경쟁 통신시장에서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고, 노동환경 변화에 맞서 전체 노동자의 권리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0년 2월 25일

KT노동조합 지방본부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KT연구개발센터 꿈나무어린이집 개원

10대 집행부 공약사항 이행, 타지역 점차적 확충 계획



10대 집행부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인 ‘KT꿈나무 어린이집’이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도 들어섰다. 조합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인 꿈나무어린이집이 수내, 광주, 부산, 목동 등에 이어 8번째로 개원한 것이다.

우면동 꿈나무어린이집은 3월 4일(목) 노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윤오원 사무처장과 김신 본사지방본부 위원장, 그리고 본사지방본부 소속 지부장들이 참여했고, 사측에서는 권사원 경영지원실장과 SD부문 중앙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개원 축하 커팅식을 한 다음, 김선희 위원장의 소개로 어린이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보육원을 둘러본 윤오원 사무처장은 보육원장에게 “시설이 깔끔하고 조리실과 화장실도 깨끗하고 청결해 마음이 놓인다”며 “앞으로 조합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안전하게 운영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이날 개원한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 포함해 수내지사, 분당지사, 고양지사, 목동정보통신센터, 혜화지사, 광주정보통신센터, 부산정보통신센터 등 총 8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10년 정기 지부대회 실시

사고지부 지부장 28명 및 지방본부 대의원 선출 완료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0일(수) 전국적으로 지부대회를 열고 각 지부의 2009년 활동사항과 2010년 활동계획을 해당 소속 조합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2010년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지방본부대의원 선거를 진행, 지방본부대의원 선출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지방조직운영규정 제51조에 의거해 지방본부대의원은 지부단위로 1인씩 선출하고, 이들 중 규약 제24조에 따라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을 선출하게 했다.

전국대의원은 규약 제24조에 의거해 지방본부 조합원이 150인 이상일 경우에는 15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고, 단수 101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 선출한다.

전국대의원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임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발생 결의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또한, 지부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방본부대의원 중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는 지방본부대의원대회는 2월 24일(수)과 25일(목) 양일간 개최했다.

한편, 사고지부에서는 지부대회를 통해 지부장 보궐선거 투표를 진행, 총 28명의 지부장을 선출했다. 당선된 지부장 명단은 오른쪽과 같다.

지방본부	지부	성명	지방본부	지부	성명
강북지방본부	은평지부	전용섭	대구지방본부	경북무선지부	정재욱
	경기북부NSC지부	유지영		수도권우선네트워크지부	김의한
	강북우선네트워크지부	박철성		자산센터지부	유재영
강남지방본부	안성지부	이선규	본사지방본부	충청고객센터지부	권승태
	강남우선네트워크지부	허정식		무선네트워크본부지부	송민관
	개봉지부	신명철		광주NSC지부	김영중
서부지방본부	인천공항지부	송창환	전남지방본부	호남우선네트워크지부	형상우
	경기서부NSC지부	방동석		익산지부	노용환
	구포지부	고정규		충남지방본부	충청무선지부
부산지방본부	강서지부	정원봉	충북지방본부	옥천지부	조동원
	거창지부	김이중		충북이케팅지부	장남진
	합천지부	박종섭		영월지부	원남희
	경남무선지부	박대호		평창지부	김진국
대구지방본부	봉화지부	이강희	강원지방본부	강원무선지부	최희동

중앙선관위, 선거업무 진행

사고지부대표자 보궐선거 및 지방본부대의원 선출 업무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사고지부 대표자 보궐선거 및 지방본부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지난 2월 1일(월) 소집돼 10일(수)까지 활동했다.

중앙선관위는 사고지부 대표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및 지방본부 대의원 선출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관장했다. 사고지부 대표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와 지방본부 대의원 선출은 2월 10일(수) 열린 지부대회를 통해 진행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임 대표위원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대표위원에 장화영 위원을 신임 대표위원으로 선출했다.

2010년 대의원 여러분!

3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뵈겠습니다

- 일정: 3월 30일(화)~31일(수)
- 장소: 지리산 수련관

해마다 3월에 열리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노동조합 최상위 의결기구입니다. 노동조합의 한 해 사업을 대의원이 심의하며, 의결할 수 있는 것도 대의원입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 고용, 임금, 복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년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는 157명의 대의원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북지방본부(21명)
박준선(서울북부마케팅지부), 이호인(동대문지부), 이경선(원효지부), 박종석(을지지부), 김경복(야외지부), 정국향(광화문지부), 김영배(도봉지부), 구자우(성수지부), 이효순(광진지부), 오종현(고양지부), 장병권(의정부지부), 김홍호(마포지부), 장영일(남양주지부), 강대현(구리지부), 노영환(동두천지부), 장원문(강북네트워크운용지부), 김승찬(서울북부NSC지부), 이효영(경기북부NSC지부), 홍홍섭(서울북부법인사업단지부), 유동근(경기북부법인사업단지부), 신종승(강북우선네트워크지부)

지원부지부), 이원희(경남법원인사업단지부), 구희재(강남네트워크운용지부), 김상희(경기남부NSC지부), 민해홍(성남지부), 최병선(경기동부NSC지부)

서부지방본부(14명)
고민석(가양지부), 정명철(구로지부), 최규승(동작지부), 임영락(서안양지부), 김성기(안산지부), 김유동(북부천지부), 김동철(김포지부), 배종태(인천지부), 지득진(연수지부), 김남일(서인천지부), 차기훈(서울강서NSC지부), 이인규(부천NSC지부), 현순기(인천마담사업지원센터지부), 박준홍(인천법원인사업단지부)

이인두(울산마케팅지부), 정희재(부산법원인사업단지부), 박근진(울산법원인사업단지부), 권재혁(경남무선지부)

대구지방본부(15명)
남배원(남대구지부), 김수영(월배지부), 김두관(동대구지부), 박주형(수성지부), 장용하(북대구지부), 박옥정(경산지부), 남태호(포항지부), 김재호(경주지부), 박용성(구미지부), 육상욱(경북마케팅지부), 김창덕(대구NSC지부), 이광재(대구우선NSC지부), 권영훈(안동NSC지부), 김진건(대구법원인사업단지부), 이주하(경북무선지부)

(IP/플랫폼운용센터지부), 박준우(국제통신센터지부), 이성동(부산국제센터지부), 김경태(우성운용센터지부), 원장연(위성관제센터지부), 최훈수(금산위성센터지부), 조운정(미디어운용센터지부), 김용관(SD부문지부), 김용하(중앙연구소지부), 조래현(안재개발지부), 김선훈(국제전화국지부), 염인식(자산센터지부), 조광래(동류센터지부)

전남지방본부(12명)
박원심(광안지부), 선종민(상무지부), 홍희정(하당지부), 손명자(순천지부), 장성열(여수지부), 이훈민(광양지부), 박준호(해남지부), 서욱태(진도지부), 류준용(호남네트워크운용지부), 김정필(호남무선지부), 오진모(광주법원인사업단지부), 한규창(전남법원인사업단지부)

충남지방본부(12명)
송민섭(충전, 동대전지부), 김문상(서대전, 구룡지부), 노철호(유성지부), 윤은중(공안지부), 박경순(천안, 성환지부), 최장근(아산지부), 오용석(충성지부), 권영미(서천지부), 임영필(대전법원인사업단지부), 안영근(대전NSC지부), 박찬국(충남NSC지부), 목진명(충청무선지부)

충북지방본부(4명)
박석현(충주지부), 임진일(서청주지부), 한재진(법단지부), 신현진(충북NSC지부)

강남지방본부(19명)
권영삼(강동지부), 이종근(송파지부), 배옥현(가락지부), 김병석(양재지부), 최종민(신사지부), 박광수(서울강동NSC지부), 강운철(강남우선네트워크운용지부), 허남규(서울남부마케팅지부), 장익수(서울남부법인사업단지부), 구해주(남수원지부), 조영주(동수원지부), 김대진(송인지부), 이재찬(수지지부), 서남수(경기남부마케팅사업

부산지방본부(20명)
김삼복(미남지부), 강명수(금정지부), 곽희식(밀양지부), 이동근(중부산지부), 김길주(북부산지부), 김동철(남부산지부), 조현배(해운대지부), 이진호(울산지부), 송윤준(창원지부), 조영국(마산지부), 최행문(통영지부), 이진우(진주지부), 박찬기(산청지부), 최용석(동래네트워크지부), 김삼천(경남진주네트워크지부), 최영규(경남마케팅지부),

입기재(무선네트워크본부지부), 이윤규(수도권우선네트워크지부), 유보열(경서무선네트워크운용지부), 이수영(고령고객센터지부), 이영인(기암고객센터지부), 정영애(부산고객센터지부), 장병수(호남고객센터지부), 압재호(SMB운용센터지부), 김영주(IMO운용센터지부), 추현엽(네트워크품질본부지부), 김상훈(네트워크연구소지부), 문건성(엔지니어링사업단지부), 김두산(명남제센터지부), 최호규

전북지방본부(6명)
이호철(전주지부), 박성만(군산지부), 정영택(무안지부), 강택술(사업지원센터지부), 윤재현(전북NSC지부), 신현균(법단지부)

강원지방본부(6명)
고성규(원주지부), 안상진(춘천지부), 김종학(강릉지부), 김규영(동해지부), 홍창욱(원주NSC지부), 장동일(강원법원인사업단지부)

제주지방본부(2명)
이문식(마케팅지부), 김익수(네트워크지부)

[2010년 노동계 달라진 제도]

직장보육시설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고용 확대

최대 화두는 '일자리'... 실수요자 입장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

올해도 역시 노동계 최대 화두는 일자리 확보와 안정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가 취업난으로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 지를 반영한다. 정규직 일터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장애인, 여성, 고령자의 일터는 날로 축소되고 있다.

노동부의 '2010 달라진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발표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는 실수요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달라진 제도를 요약했다.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2010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을 허용했으나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해 폐업 시 타격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기업이 정신을 고요해 나갈 필요가 있어 2010년 7월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2 사업주에 위탁훈련비 선지급

사업주가 법안카드를 이용해 훈련비 결제를 할 경우, 사업주가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사업주는 행정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훈련 수료자 보고와 훈련비 지원신청으로 이원화된 현행 절차를 수료자 보고·훈련비 지원신청이라는 하나의 절차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원절차가 간소화됐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3 직장보육시설 설치 장려

올해 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확대했다.

선택적으로 했던 인건비 지원을 전체 시설로 확대했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상한액을 확대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시설전환비는 지원한도를 사업주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설치비 소비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4 계약직 출산후 고용 지원

그동안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도입·시행('06.7.1)해 왔다. 또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와 1년 이상 계약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지원대상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해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했다.

5 장애인 고용 늘려야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 지난 2008년도말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14,468명)로 저조했고,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은 17.5%에 불과했다.

이에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런 시책으로 민간부문까지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6 일자리 컨설팅 지원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지원을 통해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유도하여 해당 사업주가 신규로 상용직(무기계약인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고령자취업지원 확대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취업지원 기관을 확대·개편한다.

현재, 취업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국 50개 고령자 인재은행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고 심층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을 기존 87에서 167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

또 전문적으로 퇴직할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최소한 47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8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4,11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8,860원(4,11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8,900원(4,1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조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번 노동부 발표는 여전히 예외를 적용 우려를 낳았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288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부는 '09. 12.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자가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요건을 합리화했다.

또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재고용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 동포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했으며,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10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증대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04.11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5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했으나, 5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의 주40시간제 조기 정착 및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지원제외대상을 기존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10.11 시행)했다. 1월부터 주 40시간제 법정시행일 전까지 추가고용 근로자 일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을 지원한다.

11 4월 직업능력개발포털사이트 구축

현재 노동부가 운영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해 운영함에 따라, 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해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에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며, 훈련수요자는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부부처 전체의 훈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12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월부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을 확대('09년 1만명 → '10년 2만명)·운영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지원자 중 일정한 취업지원 과정을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을 2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09년도와 달리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한다.

13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다양화

경기침체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훈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직업재활훈련사업은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희망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1급에서 9급까지였으나 이를 장애등급 12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용(인당 600만원 한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액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지급한다.

한편, 직업훈련수료자에 대해서는 창업점포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부여하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직업복귀율을 70% 수준까지 향상시킨다.

14 직업능력개발과제 유연 적용

훈련기관 중심의 실업자훈련을 수요자(훈련생) 중심으로 전환해 구직자 등 개인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직업능력개발과제'가 2010년에는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23%를 사용해 제도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71%를 사용해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과제의 유효기간(1년)이 남아있더라도 단기간 취업이나 출산·부상 등으로 과제를 쓰지 못했던 것을 개선해,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했고, 출산·부상 등의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2011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급여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각종 근로소득세인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말정산이 달라진다고 지난 2월 19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0% 이상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액의 6%를 추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해 5월 6일 이후 내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세 최고세율(과표규간 8천800만원 초과)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규간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도 6% 그 대로지만 1,200만~4,600만원은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 중요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교회나 절 등 중요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각각 추가된다.
-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이 비파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제대 군인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현장유니폼 지급기준 개선 안내

- **착용이 저조한 부서 유니폼 지급 축소 및 조정**
 - 실내 장비운용직원(내근자 3,000명) 지급 폐지
 - 시험실/전송실 등 품목 조정(하계조끼→방사조끼로 대체)
- **직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① 지급유형 세분화, ② CM/ITE 지급품목 확대**
 - 지급유형 세분화 : 총 5종 → 총 6종(작업복 3종, 근무복 2종, 창구여직원복 1종)
 - 지급품목 확대(하계유니폼 기준)
 - . CM : 바지2, 셔츠2, 조끼2(하계/방사), 모자1 → 바지2, 셔츠3, 조끼3(하계1/방사2), 모자1
 - . ITE : 바지2, 셔츠2, 조끼2(하계/방사), 벵타이1 → 바지2, 셔츠3, 점퍼1, 방사조끼2
 - . IT서포터즈 : 자켓1, 셔츠2 → 자켓1, 셔츠2, 바지2
 - . 영업기술요원 신규 지급(개통업무를 겸하는 RM) : 점퍼1, 방사조끼1
- **신규자 및 디자인 개선년도에는 지급유형에 따라 조끼(점퍼)1, 바지1, 모자1 추가 지급**

〈직무별 지급유형(개선 전·후) 비교〉

작업복 A형	CM	전력실, 물류, 무선기술팀	작업복 A형	CM
작업복 B형	시험/전송, 기술지원팀	보일러실, 공사감독	작업복 B형	전력실, 물류, 무선기술팀
작업복 C형	현업기관장비운용직원내근		작업복 C형	보일러실, 공사감독
고객방문복	IT엔지니어, 전용AS	기업고객가치팀	근무복 A형	IT엔지니어, 전용AS
창구여직원복	플라자 창구근무직원		근무복 B형	시험/전송, 기술지원팀/기업고객가치팀
			근무복 C형	개통업무를 겸하는 영업기술요원
			창구여직원복	플라자 창구근무직원

※자세한 내용은 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자료실 '문서·장책'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힘으로 희망을 현실로!

KT노동조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회 개최



KT노동조합은 3월 5일(금)~6일(토) 1박2일간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에서 'KT노동조합 3·8 여성의 날 기념 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본부 과감속 여성국장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본부 여성국장 및 여성대의원, 여성지부장 등 여성간부 총 35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1박2일간 여성리더십과 법률교육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여성단체연합의 102주년 기념행사에 합류했다.

중앙본부 과감속 여성국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102주년을 맞은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여성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고자 모였다"고 인사하고 "현장의 고충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지만 KT노동조합 여성 조합원의 목소리가 하나 둘 모이면 불가능이란 없을 것"이라며 여성간부들을 응원했다. 이어 과감속 여성국장은 "KT가 여성 조합원들이 활짝 웃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희망의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위해 참석한 장인태 조직처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은 뒤 "KT노동조합은 2010년 HOST운동과 조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자리에 모인 여성간부들과 함께 102년 전 여성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했던 동지들의 뜻을 기리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자기소개 및 간단한 친교프로그램 후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흐름 주도"

'여성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나'를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유경희 강사는 여성인권의 역사를 소개한 후 리더십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에 나섰다. 유 강사는 "남성들의 리더십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여성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주도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고 삶의 질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며, 작은 힘들을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대숙 사무국장은 '여성조합원에 대한 법률지원, 상담교육 및 상담소 개설 운영 설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민 사무국장은 "여성 조합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소한 불평등과 성희롱에 무기력해져 있다"고 우려한 뒤 "상담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감과 지지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서적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감속 여성국장은 "오는 4월부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와 함께 KT여성조합원을 위한 전화상담시스템 및 전용계시판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간부들은 밤 9시까지 이어진 교육 후, 전국의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동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의 밤을 보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자"

이튿날 여성간부들은 청계천, 광화문KT지사를 도보로 행진한 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여성단체연합 행사에 합류했다.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18개 여성 시민 사회 문화 인권단체는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6일(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자"고 소리 높였으며, 정부에 공공립 보육시설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이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로 감소했고, 여성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일자리 대책은 관심도 없고, 생색내기식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성평등 걸림돌과 디딤돌을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올해 성평등 걸림돌상은 대구 예활원 성폭력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구 지방법원 1심 재판부, 출산 및 낙태방지 선언을 하게 한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 광우병대책위에 참가하고 NGO를 불법 단체로 규정해 지원을 끊은 행정안전부 이달관 장관에게 돌아갔다.

디딤돌상은 성추행에 맞서 조합장 해임을 이끌어 낸 일실치즈축산협동조합 여성직원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88cc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제9부 판사, 여성 정치 세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선정됐다.

KT노동조합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해마다 3월 8일을 전후로 기념 대회를 열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대와 리더십의 중요성 일깨워준 나의 여성의 날 서울상경기

참여 수기



충남지방본부 서천지부대의원 권영미

나의 첫 여성대회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3·8세계여성의 날은 언론을 통해 익히 들어봤지만, 직접 참여할 기회가 흔치 않아 여성운동가들의 날로만 여겼었다. 서천지부 대의원으로 뽑힌 후 참석요청을 받고 막상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도 생겼다. 더욱이 이번 여성대회는 1박2일 동안은 상급단체 없이 오롯하게 KT만의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 직접 참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다른 조합원들처럼 나 역시 업무가 많았지만, 대의원으로서는 어렵게 시간을 낸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배워 오고 싶었다.

KT여성조합원 "리더십으로 무장하기"

금요일 오후, 전국지방본부에서 생각보다 많은 여성조합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중앙본부 과감속 여성국장이 행사의 취지와 친교시간을 주도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만인가 싶었다. 다소 떨리고 어색했지만 KT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서로의 고충을 공감할 것이라고 여기자, 어느 순간 여고동창들을 만난 듯한 편안함이 살아났다. 또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인력부족과 업무부하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 '역시 우리는 KT를 사랑하는 한 식구구나' 느낄 수 있었다.

교육 또한 유익했다. 특히 리더십에 대한 교육은 처음에는 나오는 거리가 멀게 여겨졌으나, 강한 것만이 아닌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힘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일궈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능동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모으고 경청하고 이해를 늘리는 훈련을 통해 리더십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토론식 교육으로 금세 친해진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각 지방의 소식을 공유하며 유쾌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여성 "연대로 목소리 높이기"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는 광화문KT를 중심으로 덕수궁과 청계천 등지를 산책하고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하기도 했다. 맑은 날씨 덕인지 이른 시각임에도 많은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토요일 아침을 가족이 아닌 여성조합원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색다른 했지만,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잠깐의 여유를 즐긴 뒤 우리는 점심을 먹고 여성단체연합 주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화여대 강당으로 이동했다. KT노동조합의 여성대회가 전국 여성조합원들을 대변하는 KT여성들의 축제였다면, 여성연행 행사는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장애인연합, 여성의 전화,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모인 대 축제였다.

참석자들은 일저리고민에서부터 육아 등 피부에 닿고 공감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끄집어 내 공론화 했다. 특히 '여성의 문제는 곧 인권의 문제'라는 사회자 권해효씨의 말이 꽤 인상적이었다. 매일 고객과 만나는 KT여성조합원이자 서천지부 대의원으로, 또 가정에서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 나의 주체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끔 만든 시간이었다. 때문에 나에게 여성대회는 여성들이 마음껏 소통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일정을 마치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비록 고단했지만, 잠시나마 가슴이 탁 트인 것 같아 '연대의 힘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딸들이 좀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육아고민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면, 이런 수고스러움쯤은 얼마든지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여성조합원들이 여성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KT 여성조합원, 파이팅! 대한민국 여성 모두 파이팅!"

2월 노무 상담사례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금년 1월 말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 하시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3주째 치료받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하시는 일은 거래처 영업 및 관리담당이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회사의 인사이동과 구조조정으로 불안해 하였고요,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 특성상 지방출장이 잦았고 올해 들어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뇌경색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노동부장관 고시(제2008-43호)는 24시간, 1주일, 3개월 이라는 단위를 적용하여 뇌경색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하기 힘든 사건적(偶)인 발생, 폭력사건 등의 발생, 1주일을 기준으로 업무량 ·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환경 변화,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요인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님이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산재(요양) 신청을 하여 아버님이 뇌경색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업무분장표, 근무일지 등)가 준비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요양) 신청을 하시기 전에 아버님의 재해발생경위 및 입증자료 확보 등과 관련하여 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